

절양루·우다방...충장로 과거를 엿보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12월 12일까지 기획 전시

130여점 소개...변화상 등 재현

광주와 남도 사람들에게 충장로에 대한 추억과 기억은 남다르다. 호남 상권 1번지로 호황을 누리던 시절, 충장로는 실 새 없이 오가는 인파로 붐볐다. 그러나 이것은 충장로의 긴 시간 중 일부분일 뿐이다. 이렇듯 저마다의 삶 속에서 충장로는 삶의 터전이자, 만남의 장소, 소풍의 공간, 추억의 거리 등 각기 다른 이미지와 풍경을 환기한다.

조선시대 충장로는 절양루라는 누각에서 광주읍성 북문을 거쳐 회경루와 객사에 이르는 길을 통칭했다. 임진왜란에 나서기 위해 결의를 도모했던 절양루,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의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졌던 우체국 등 충장로는 오랜 시간 광주의 정기가 살아 숨 쉬는 거리였다.

광주의 유서 깊은 변화가인 충장로 역사와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관장 구중천)은 기획전시 '충장로'를 12월 12일까지 개최한다.

총 3부로 구성된 전시에는 충장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자료 130여 점이 소개된다.

제1부 '충장로로 불리기까지'에서는 지명의 변천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충장로는 통일신라시대 무진도독성의 가로망 중 하나에서 시작돼 고려말 축조된 광주읍성 네 개의 성문 중 북문과 남문을 잇는 길로 발전했다. 조선시대에는 북문거리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 북문동에서 본정으로 바뀌었다. 광복 후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의병장 김덕령의 시호를 따서 지금의 충장로가 됐다.



일제강점기 당시 충장로 거리를 재현한 풍경.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제공〉

특히 조선시대 절양루(일명 공북루)에서 의병들이 출정한 사실부터 3·1운동, 학생독립운동, 4·19혁명 때마다 충장로를 매운 인파들이 외쳤던 항일독립과 반독재 투쟁의 열기를 가늠할 수 있다.

제2부 '충장로, 근대 광주와 동행'에서는 조선시대 광주읍성 내 한적한 도로에서 20세기 초 광주 변화가로 변모하는 충장로 과정을 살펴본다. 광주는 1896년 전라남도 관찰부가 되었고 일제강점기에 전라남도 도청이 자리 잡으면서 발전의 계기를 잡았다.

1906년을 기점으로 충장로는 상가, 은행, 극장, 요식업체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변화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홍보물, 사진엽서, 상품, 지도 등이 펼쳐진다. 충장로 전경을 비

롯해 1912년 충장로 2가 모퉁이에 들어선 광주우체국 모습도 만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주사람들에게 '광주시내=충장로'로 인식됐다. 이러한 인식의 근거에는 충장로가 상권 중심지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제3부에서는 '광주시내=충장로'를 주제로 상권과 문화관점에서 거리를 다채롭게 조명한다.

1940년대까지 3가 정도에 머물렀던 상가는 1950~60년대 대인동 광주구역에 있는 구성로의 발전과 맞물리며 4~5가로 확장된다. 당시 충장로는 4~5가 점포가격이 2~3가보다 더 높았을 정도로 절정기를 맞았다. 전시장에서는 충장로 4~5가 오래된 양복점과 한복점이 제공한 자료 등이 소개된다.



절양루(1910년대)

이밖에 충장로는 문화생활과 교류를 위한 공간의 역할도 담당했다. 1950년대 충장로 다방에서는 전시회가 열렸고 추억의 우다방(광주우체국 앞 네거리)은 항상 젊은이들로 붐볐으며 1가에서 5가 어디를 가도 영화를 골라볼 수 있었다.

특히 전시장에서는 우체국 일대 공중전화부스, 서점, 다방 등도 1970~80년대 분위기로 재현된 공간도 볼 수 있어 지난 시절의 추억과 향수에 젖을 수 있다. 문의 062-613-536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

임지형 조선대 교수 공로상

임지형(사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교수(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가 마련한 제34회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최근 선정됐다.



한국예총 '대한민국 예술 문화 대상'은 1987년 '예총예술문화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예술인에게 주는 상으로 그 공적을 기리고자 제정됐다.

임 교수는 송고한 예술혼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대한민국 예술문화 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한 공이 높이 평가됐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후 6시 경북 구미 금오산호텔 대연회에서 열린다.

임 교수는 현재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광주현대무용단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한국무용협회 광주시 지회장, (사)한국현대무용협회 부회장, (사)한국무용협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제21회 서울무용제 우수상 및 제12회 한국무용제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다.

임 교수는 "예상치 못하게 큰 상을 받아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무용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만화·문학·미술 등 5개 분야

문체부, 18~22일 온라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13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만화·문학·미술·공연·대중음악 등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18~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8일 웹툰 및 스토리 작가 대상 만화 분야를 시작으로 19일 문학, 20일 미술, 21일 공연, 22일 대중음악 분야로 이어진다.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은 저작권 및 계약 문화 전반의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실무 대응능력을 키우고자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마련된다.

모든 교육은 무료이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을 통해 교육 2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첨단 대중문화, 시에 녹아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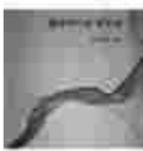
김애옥 작가 첫 시집

'뱀파이어의 메일함' 펴내

TV 드라마 작가로 시작해 산문과 소설, 인문 관련 글을 꾸준히 써온 김애옥 작가가 첫 시집 '뱀파이어의 메일함' (시와문화)을 펴냈다.

이번 작품집은 첨단 대중문화를 시의 소재로 삼으면서도 어린 시절의 원초적 체험 등이 녹아 있어 새로운 감성을 선사한다. 작가는 지금까지 산문집 '그대가 나의 편지', 소설집 '응답하라 필승', 인문서 '응답하라 에니 소통', '응답하라 시놉시스' 등을 펴내며 장르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글쓰기를 시도했다.

"사라진 선배에게 보냈던 메일을 삭제했다/ 퇴직하면 고향 내려가 산다고 했던 그/ 그 고향이 레테의 강이었다 보다/ 두 번 다시 잃고 싶지 않아 매달렸던 사랑도 지웠다/ 머그잔 두 개 때문에 갈라선 우정도 지웠다..."



표제시 '뱀파이어의 메일함'은 생생한 낱것의 언어를 그려져 있다. 현실이라는 공간에 불박혀 있지만 화자가 지향하는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다.

최근진 시인은 "그녀의 집은 붉은 문장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며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순전한 절망을 핏빛 문장으로 바꾸어가는 뱀파이어로의 변모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평한다.

한편 김애옥 시인은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영상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2018년 월간 '시' 공모 당선으로 등단했으며 현재 한국방송작가협회 정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란 극복 사대부·백성 활동상 일기 번역

신해진 전남대 국문과 교수

검간 임진일기·자료집성 펴내

임진왜란 당시 사대부와 백성들의 국난극복 활동상을 기록한 일기가 번역돼 출간됐다.

전남대 국문과 신해진 교수는 보물 제1003호인 '검간 임진일기' (보고서)를 고증한 역주서와 여러 이본들을 모은 자료집을 출간했다.

'검간 임진일기'는 검간(黔淵) 조정(趙靖, 1555~1636)이 임진왜란 당시 경북 상주의 사대부와 백성들의 국난극복 활동상을 기록한 일기로, 전란 속에서 겪게 된 죽음과 피난 상황 등이 묘사돼 있다. 특히 초서본은 임진왜란 실기 중 드물게 현존하는 친필 문헌으로 상주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신 교수는 '검간 임진일기'를 번역하며 등장인물 활동과 공간 이동을 확인하고, 개인적·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그들을 조망할 수 있도록 현연·



지연·학연 등을 고증했다. 지명에는 자연부락까지 상세한 주석을 덧붙였다.

신 교수는 아울러 '검간 임진일기자료집성'도 발간했다. 옛 문헌자료는 후손이나 문중, 제자 등에 의해 글이 첨삭되거나 고쳐지거나 마려인데 원자료의 초서본, 초서정서본, 판각정서본, 목판본 등을 영인한 이미지를 차례로 한데 모았다. 이 자료집은 원본 내용이나 표현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송조정신과 향촌제지사족의 추수의식에 대한 통시적 맥락까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교수는 전통시대 문헌 발굴과 교감, 역주 작업 등을 펼쳐왔으며 85권의 학술서적 간행을 통해 후속 연구를 이끌었다. 지난 2019년 용봉학술상, 2021년 용봉학술특별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안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문화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